

1 이야기의 힘 2 공감대 3 스타파워

역동적 현대사, 이야기의 힘 강력 동시대 산 사람들 공감 확보 유리 송강호 등 배우들 파워 무시 못해

스크린이 다시 현대사의 다양한 사건과 그 현장을 비춘다. 각각 시대적 배경과 그에 얽힌 사실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굴곡진 역사의 한 흔적을 되짚는 흐름을 이어간다. 11월 선보이는 '국가부도의 날'을 비롯해 올해 안 개봉할 예정인 '스윙키즈', '마약왕' 등이 그 무대다.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IMF 위기를 둘러싼 이야기. 경제위기 속에서 이를 막으려는 이들과 이를 기회로 욕망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힘겨운 상황에 맞닥뜨린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린다. '스윙키즈'는 1951년 경남 거제에 세워진 거대한 포로수용소를 배경 삼은 영화. 우연히 춤의 세계에 빠져든 인민군 소년 포로와 그 형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참화가 빚어낸 비극과 또 다른 희망을 그려낸다. '마약왕'은 1970년대 마약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펼친다. 밀수업자였다 마약을 통해 돈



'국가부도의 날' '스윙키즈' '마약왕'(왼쪽부터) 등 현대사의 다양한 사건과 현장을 비추는 영화가 관객을 만난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쇼박스·NEW

과 권력을 쥐게 된 이두삼과 그 주변 사람들이 짙은 시대적 기운을 뿜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연기로 풀어내는 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국가부도의 날'은 김혜수, 유아인, 백성 카셀 등 국내외 스타들이 힘을 모아 완성했다. '스윙키즈'는 그룹 엑소 출신으로 최근 한창 각광받고 있는 도경수가, '마약왕'은 최고의 '흥행파워'를 지닌 송강호를 비롯해 조정석, 배두나, 이성민 등이 주연했다.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가난과 권력 그리고

욕망 등 현대사의 흐름 안에서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당대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작품 안에서 각 배우들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시대적 공기를 재연한다. 송강호는 "1970년대를 관통한 이들의 모습을 집약해 지난 한 시대를 조명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은 이 같은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인다. '공작' '1987' '택시운전사' '변호인' '국제시장' 등 최근 몇 년 사

이 흥행한 작품만으로도 현대사를 다룬 영화의 '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충무로 한 관계자는 "그만큼 우리 현대사가 역동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굴곡진 역사의 한 단면을 담아내는 이야기가 지닌 영화적 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가가 그리는 이야기의 실제 시대적 배경인 해당 시기를 살아낸 많은 이들과부터 공감대를 얻음으로써 더욱 폭넓은 관객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ladada@donga.com

#해시태그 킷



김소현 "저 운전면허 땀어요"

연기자 김소현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1999년생으로 올해 만 19세인 그는 "20살 되면 하고 싶었던 것 중 한 가지, 운전면허 땀어요"라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렸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의 증명사진도 공개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스타일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팬들은 "증명사진도 굿윅 없다" "스무 살 축하" 등의 반응을 보낸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김소현 #스무살 #운전면허증

이 영화

'검은 사제들'



한국판 '엑소시스트'로 화제 오컬트 장르 인기 견인 한몫

현재 안방극장에서는 악귀, 빙의, 주술, 엑소시즘 등을 다루는 오컬트 드라마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방영중인 OCN 수목드라마 '손 더 게스트'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가 악령에 빙의된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내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뒤를 이어 11월에는 '프리스트'가 OCN 주말드라마로 방영을 시작한다. '프리스트'는 소중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의사가 엑소시스트와 합심한다는 설정으로 오컬트와 의학 장르를 섞는다. 내년에는 과거의 영혼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 빙의된다는 타임 슬립의 장르가 더해진 '빙의'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오컬트 장르가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영상시장에서 본격 오컬트 장르로 성공을 거둔 영화 '검은 사제들'이 새삼 화자 되고 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검은 사제들'은 국내에서도 오컬트 장르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김윤석·강동원이 주연한 '검은 사제들'은 악령에 빙의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베테랑 사제(김윤석)와 초짜 사제(강동원)가 구미의식을 벌이는 이야기. 당시 관객들에게 낯선 소재를 다루고 극장 비수기인 11월 개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전망이 어려웠지만 54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소녀 역의 신예 박소담은 2016년 제37회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검은 사제들'은 영화 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국내 영상 콘텐츠의 장르를 다양하게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검은 사제들'을 통해 소개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오컬트'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환기시켰다.

백슬미 기자

편집 | 김형주·김대건 기자

큐브엔터와 이별한 현아, 향후 행보는?

여러 소속사서 러브콜...계약 신중 광고 이미지 훼손 법적다툼도 예상

'열애설 제기→부인→인정→퇴출→반복→전속계약 해지→?'

가수 현아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8월 초 그룹 펜타곤 이연과 열애설이 처음 제기된 후 잇따라 불거졌던 이슈는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와 "전속계약 해지"로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자유의 몸'이 된 현아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한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포미닛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매니저 A씨와 큐브에서 나온 현아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새 기획사를 찾을 계획이다. 일부 스타급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세우고 독자활동을 나서기도 하지만, 현아는 새 기획사를 모색해 향후 연예활동의 지원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열애 인정'과 관련해 큐브 측과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일 당시부터 현아는

국내를 포함해 아시아 등지에서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가요계에서는 현아가 박재범이 소속된 힙합 레이블 AOMG에 합류한다는 이야기도 번졌다. 하지만 이는 현아와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스타일리스트와 스태프 등이 AOMG에서 일하면서 생긴 오해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댄스 솔로가수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만큼 다양한 곳에서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새 소속사를 결정할 것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세웠다"고 말했다.

현아는 활동 계획을 구상하면서 향후 일어날 각종 '사건'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큐브가 앞서 "신뢰 회복이 불가능"이라며 "퇴출"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밝히면서 당시 현아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광고주 측에서는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관련 계약 조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아 측도 법적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원 기자 annjoy@donga.com

수목극 정복한 '내 뒤에 테리우스'...소지섭의 힘

준비부터 소지섭 염두...생동감 UP 오지영 작가 필력도 인기몰이 한몫

배우 소지섭이 MBC 수목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의 시청률 1위 기록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존재감이 크다보니 그의 캐스팅 비화도 화제다. 드라마는 애초 소지섭을 위한, 소지섭에 의한 드라마였다.

대본을 집필하는 오지영 작가는 드라마를 준비할 때부터 소지섭을 머릿속에서 그렸다. '우리 옆집에 소지섭이 산다면?' '소지섭을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다면?' 등의 막연한 상상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이 그저 흐릿하고 즐거울 것 같다"는 자신처럼 '여성이라면 소지섭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며 오지영은 소지섭의 이미지를 캐릭터에 구체화시켰다.

하지만 초반에는 주변의 걱정을 사기도 했다. 배우를 특정하고 글을 썼을 경우, 계획대로 캐스팅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캐릭

터와 해당 배우의 힘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지영의 바람이 실제로 이뤄졌고, 캐릭터는 소지섭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카리스마 넘치는 정보요원이 어설픈 베이비 시터 역할을 하는 설정을 소지섭이 잘 소화해내면서 오지영의 필력도 주목받고 있다.

연출자 박상훈 PD도 소지섭에게 구애를 드러낸 바 있다. '내 뒤에 테리우스'를 통해 처음으로 장편드라마 연출에 나선 박 PD는 지난해 MBC 단막극 '제가 지켜 판타지-생동성 연애'에 소지섭의 이름을 활용했다. 박은영·박희권 작가의 의견도 반영해 극중 윤시윤과 강기영이 맡은 캐릭터를 소지섭과 조인성의 이름을 섞어 각각 '소인성'과 '조지섭'으로 썼다. 박 PD는 지난 달 '내 뒤에 테리우스' 제작발표회에서 "배역에 다른 배우를 떠올릴 수가 없다. 대본을 한 번에 알아봐줘 감사하다"고 여러 차례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현장.jpg

3인조 걸그룹 카밀라, 가을을 유혹하는 파격 패션



'계절을 잇는 패션'. 걸그룹 카밀라(왼쪽부터 정유빈·한초임·정유나)가 1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S/S 헤라 서울패션위크 '바이브라이트' 콜렉션에 참석해 남다른 패션 감각을 뽐냈다. 카밀라는 엠넷 '러브캐처'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한초임이 멤버로 합류해 관심을 모으는 팀으로, 9월 '레드 립스'로 데뷔했다. 이날 정유빈은 파격적인 수영복 패션으로 특히 눈길을 모았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편집 | 김형주·김대건 기자